

4월6일(월)

제목: 기적이 예수님을 정당화 시킵니다.

사도신경/찬송:254장/요한복음5:31-38

예수님의 대적자들의 예수의 주장이 참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다. 예수님은 그들의 심중을 아시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논증하셨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해 줄 수 있는 분으로 하나님을 내세웠다.(32절,37절)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 번 예수를 메시아로 증거하였던 세례요한을 상기시켰다.(33절)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행한 ‘역사’ (36절)를 그 증거로 내 세우셨다. ‘역사’ 라는 말은 기적을 의미한다. 구약의 선지자 전통에 의하면 장차 오는 메시야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오랜 전통이 있었다. 예수님은 이 사상에 정통한 유대인들의 기억을 상기시키셨다. 그들은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보고 알고 있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셨다. 예수님이 행한 기적은 그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의 참 구원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그것은 지금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이다. 기적이 예수님을 정당화시킨다.

4월7일(화)

제목: 교회 중직자의 득과 실

사도신경/찬송:252장/요한복음5:39-47

유대 종교지도자들은 성경(모세오경)이 영생을 가르치는 책이라고 믿었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씀인 것은 깨닫지 못했다. 예수님은 “만일 너희가 이 책들을 올바르게 읽었다면 너희는 그 책이 나를 지적하고 있음을 알았을 것이다” (39절) 그러므로 그들이 모세오경 안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영생을 포기하는 것과 같았다.(40절) 유대인은 큰 특권을 받았다. 세계 어느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책을 수여받은 민족이 있는가? 그들의 특권은 모세를 통해서 성경을 받았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를 거절하였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모세에게 고발당하게 됨을 면치 못하게 된다.(46절) 유대인들은 모세라는 큰 특권을 받았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범죄의 빌미가 되었다. 특권이 크면 클수록 책임도 크며 정죄도 크다. 목회자를 비롯해서 교회 중직자들에게 많은 특권이 주어졌다. 그 특권을 잘 사용하면 더 큰 복을 누리지만 그것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 그만큼 더 큰 정죄를 받는다. 하나님은 많이 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 여기에 교회 중직자의 득과 실이 있다.

4월8일(수)

제목: 목회자를 위한 광주리

사도신경/찬송:430장/요한복음6:1-15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 제자들에게 특별 부탁을 하셨다.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12절)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남은 조각은 열두 광주리에 찼다.(13절) 왜 예수님은 음식을 남겨두라고 하셨을까? 유대인들의 풍습 가운데 잔치 때 음식을 나르고 봉사한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의 음식을 남겨두는 것이 관례였다. 예수님이 남겨두신 음식은 제자들의 몫이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는 동안 제자들은 계속 시중을 들었다. 그들은 봉사하는 동안에는 먹을 겨를이 없었다. 열두 제자들이 분명히 한 광주리씩 가지고 갔을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목회자들에게도 정확하게 적용된다. 하나님의 생각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하나님은 교회 성도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종들을 위해 따로 광주리를 준비하라 명하신다. 목회자는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동안 다른 직종에 종사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목회자 몫의 광주리를 교회에게 준비하라 하신다. 광주리는 교인들이 베푸는 호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칙이다.

4월9일(목)

제목: 예수님이 왜 물위를 걸었을까?

사도신경/찬송:432장/요한복음6:16-21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자 이를 본 많은 무리들이 그를 왕으로 삼기 위해서 물려들었다(15절) 예수님은 복잡해진 상황을 아시고 제자들을 미리 배에 태워 빠져 나가게 하셨다.(16-17절) 그리고 그 다음 예수님은 물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의 배를 뒤 따라가셨다.(19절)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셨으면 안 되었을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가 왕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런데 왕이 되기를 스스로 거절하고 군중들 사이에서 급히 빠져나가는 예수님의 모습에 제자들은 다소 실망하였을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실망과 당황스러움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아셨다. 제자들은 그가 왕으로서의 권능과 권세를 정말로 가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생겼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물위를 걷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 주심으로 자신이 만물의 왕이심을 당장 보여 주셨다. “나는 모든 영역에서 왕이다. 자연의 영역에서도 왕이다.”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따라가신 것은 실망한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배려이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상하시며 세심하신 분이시다.

4월10일(금)

### 제목: 예수님은 생명의 밥

사도신경/찬송:429장/요한복음6:22-40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떡 맛을 보았던 군중들이 계속 자신을 따라오자(26절) 그들에게 참 떡에 관한 말씀을 주셨다. 참 떡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인데 그 떡이 예수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하셨다.(35절) 과거에 모세가 준 떡(만나)은 참 생명의 떡의 예표에 불과하였다. 여기서 생명이란 부활(39절)과 영생(부활)을 가리킨다. 예수님을 먹는 자(믿는 자)는 부활과 영생을 보장받는다. 예수님께서 가장 바라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먹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먹는 것(믿는 것)을 가장 참된 하나님의 일, 가장 참된 봉사라고 말씀하셨다.(28-29절) 예수님은 자신을 매일 매일 먹으라고 하신다. 우리는 매일 세 끼의 식사를 하듯이, 최소한 하루에 세 번 이상은 “주 예수 당신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밥입니다.” 믿고 고백해야 한다. 하루 세 끼의 밥을 먹는 만큼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먹어야 한다. 이렇게 매일 매일 그를 먹는 것이 가장 위대한 봉사이다. 식당 봉사. 여전도회 봉사보다 더 큰 봉사는 매일 매일 예수님을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 직장 · 가정 예배 모범문



작성자 : 박유신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제일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647-2(중앙동 7단지 뒤)  
Tel.(031)485-0955~7 Fax.(031)401-2370